

□ 자양면

*노항리

1410년경에 김자양(金自養)이라는 선비가 영천도동에서 이곳으로 와 마을을 개척했다 하고 그 후 이 배원이라는 선비가 선산에서 이 곳으로 입향(入鄕)하여 살았으며 정차근(鄭次謹)이라는 선비도 입주했다. 이배원(李培源)의 자인 이의와 김응생과 정윤량 선비등이 함께 구지에 자양서당을 구축하여 사림의 강학소로 하였다 한다. 자양서당은 향내많은 문인을 배출하고 1974년 10월 24일 영천댐 공사로 인하여 수몰됨으로써 지방유형문화재 제78호로 지정 받아 영천군 임고면 삼매리로 이건하였다. 동인각의 바로 옆자리이다.

*도일리

상도일(上道日)은 지금부터 약400년전 이곳에 안부자가 살았다. 또 이 마을은 경주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다. 한양으로 가는 손님은 안부자집에서 머물렀다. 중도일(中道日)은 약150년전에 최씨가 개척했다하며 신당은 약 150년전에 남상봉이라는 선비가 개척했다. 이 마을은 조선 말까지 경주군에 속했던 것을 1910년 행정구역 개편시 영천군에 속하게 되었다.

*성곡리

회용(回籠)은 지금부터 약 350년전 이만수라는 선비가 개척하고 뒷산 모양이 마치 꿈틀거리는 용 모양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기룡산 중턱에 성현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는 사람 1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공간을 지닌 큰 굴이 있다. 임진왜란때 조자암선생이 영천향교에 있는 오성((五聖)위패와 임고서원 정몽주선생 영정을 이 곳에 이관, 봉안하고, 또 80세 되는 노모를 봉양했다 하여 후세의 향인들이 성현암(聖賢岩)이라 부르고 있다. 댐 건설후 새로 자양면 소재지가 되어 있다.

*신방리

신전, 새뱅이가 있으며 골안은 약 350여년전 김한미(金漢美)라는 선비가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부전(畝田)은 강순신(姜舜臣)이라는 선비가 지금부터 약 400여년전에 개척한 마을이며 당시 장고 같이 생긴 밭을 개간하였다하여 장구밭이라 부르며 진주 강씨가 主姓이다. 이 마을에 효자각이 있다. 이 효자각은 강창언(姜昌彦)이라는 선비가 가난하여 평소 부모를 잘 봉양하지 못함을 죄스럽게 여기던 중 부친이 병으로 눕게 되자 평소 좋아하던 물고기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가뭄으로 냇물이 말라 고기가 없게되자 안타깝게 생각했다. 하루는 눈내리는 날 냇가를 방황하던중 냇가에서 큰 물고기 튀어 나와 이 고기를 부친께 드리니 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후 효자로 칭송을 받게 되고 1945년 후손에 의해 비각이 세워졌다.

*용산리

큰마을, 건넛마을, 아린머리, 운태골등이 있으며 본동은 가장 큰 마을로서 큰마을 또 큰마실이라고 한다. 이 곳에서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났는데 일본인들이 침입하여 산의 맥을 잘랐더니 용이 승천했다고 한다. 건넛마을 : 물건너 있으며 큰마을과 접해 있다.

*충효리

일견군평(日見軍坪) 검단(檢丹), 내검(內檢), 하거일부(下巨一部)가 합하여 1914년 읍면 통폐합시 충효리로 하였다. 군드레들은 삼한시대에 가야국 또는 가락국의 군인들이 개척하였다고 하며 또

한편으로는 약 350년전 안대결(安大結)이라는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도 한다. 또 산남의 진의 의병들이 처음으로 작전을 세운 곳도 여기다. 검단(檢丹)은 약 330여년전에 이신범이란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했다 하며 또 조선 말경 일본 침략이 시작될때에 일본군에 대항하다가 전몰한 산남의진의 장군인 정환직, 정용기 부자의 출생지이기도 하며 정대장부자(鄭大將父子)의 충효를 위해 세운 충효재와 유허비 그리고 부자분의 묘가 있어 충효가 서린 곳이기도 하다. 솔목(率牧) 내검단은 문하복(文夏福)이란 선비가 약 350년전에 개척했으며 뒷산에서 군인의 기마훈련을 한적도 있으며 말을 방목하던 곳이라 하여 솔목(率牧)이라고 한다. 일견(日見)은 약 350년전 이일명(李日明)이란 선비가 개척했으며 꽃피는 마을이란 뜻이기도 한다.